

# 고속도로·돈봉투 여야 모두 악재...총선 앞둔 정치권 요동

### 국힘, 양평 고속도로·순살 아파트에 잼버리까지... '총선 필패론' 시골 민주, 혁신위 '노인 폼하' 논란에 돈봉투 의원 구속 등에 지지율 담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잠복했던 각종 변수들이 부상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에 이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까지 겹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사법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고 김은경 혁신위원회 논란이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여야의 지지율이 크게 엇갈리게 나오는 등 정치적 유동성이 커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민주당이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일 구속됐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에게 300만 원짜리 봉투 한 개씩을 전달한 혐의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특정된 의원들의 명단이 흘러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을 19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9명 가운데 광주·전남 등 호남 국회의원 4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총선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은 검찰의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검찰에 의해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특정된 의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조치까지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민심의 눈길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를 초간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시 영장 심사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에서

이 대표의 '10월 퇴진설' 등 각종 정치적 시나리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혁신위는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폼하' 발언 등 잇단 설화로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 시누이의 폭로 글에 따른 파장도 확산될 조짐이다. 당장, 혁신위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도록 당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휴가를 마치고 7일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의 위기 극복 리더십이 관건이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측생의 결단을 통해 당의 결집을 이끌지 않는다면 당내 계파 갈등이 최정점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등을 집중 공략하고 있지만 내부 고민도 상당하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총체적 부실 등 각종 악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심의 피로감을 누적시킨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그동안 잠잠했던 당내 분란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4일 국민의힘 총선 참패론을 제기한 데 이어, 공천 장난 등이 있을 경우에 신당 창당 및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당내의 대표적 비운(비 윤석열 대통령) 계인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공천 구결할 생각 없다"며 무소속 출마나 신당 합류 등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보수 진영의 분열은 수도권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으로선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다.

이처럼 정치적 변수가 속출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정국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장충기·안종범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 광복절 특사 풀려나나

### 법무부 오늘 대상자 심사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9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면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대상자는 통상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의 의견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된다. 다만 이번에는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이 광

복절인 만큼 일정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지난 신년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주로 이름을 올린 만큼 이번 특사 대상은 경제인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특별사면이 점쳐진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됐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이중군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재계 안팎에서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리는 특별사면 대상자다. 정치권에서는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안선(67)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대상자로 거론된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재단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 민주 혁신위, '대의원표 비율 축소' 가다

### "폐지는 불가"...비명계 반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내 주요 혁신 의제로 꼽힌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도록 당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6일 "대의원제를 폐지하지는 여론이 있으나, 이는 불가능하다"며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의원제 개선 요구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해 표 등가성이

"당원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기존의 45%에서 30%까지 낮춘 바도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과도 맞물려 정창래 최고위원 등 일각에서는 아예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했다. 대의원의 표 비중을 줄여 현역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다. 이후 혁신위 출범과 함께 대의원제 폐지 요구는 거세졌고, 혁신위도 이를 면밀히 검토해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박영수 전 특검 구속... '50억 클럽' 수사 탄력

### 대장동 민간업자에 19억 수수 혐의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 온 박영수(71) 전 특검검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월30일 법원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50억 클럽' 수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측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 주택 건물 등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구속 기한인 20일 내에 마무리하고, 공범인 양 전 특검보와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다른 관련자들에게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행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온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